

현장시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환경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독이다

최근 제주에서 때어난 재생에너지 공급 논란이 한창이다. 추자도에서는 무려 3GW에 달하는 풍력발전시설을 해상에 건설한다고 하고 남원읍 수망리에는 마라도 3배 면적의 녹지와 숲을 밀고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고 한다. 둘 다 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시설인데 기후위기 시대에 환대를 받아야지 왜 반대와 사회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일단 이번 사업의 핵심적 문제는 사업이 과연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냐는 점일 것

이다. 그런데 추자도 풍력발전이나 수망리 태양광발전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일단 추자도의 경우 사업규모만 400km로 추자도 면적의 60배에 달한다. 사실상 추자도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추자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황금어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규모 해상공사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철새이동경로를 방해하는지 여부,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소음피해 등 많은 문제가 상존한다. 특히 건강한 바다생태계가 중요한 탄소흡수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해상공사를 통해 거대한 풍력발전단지 세우려는 계획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수망리 태양광발전시설도 앞선 논란과 다르지 않다. 사업부지 전체 면적은 233만㎡에 개발부지만 81만㎡

에 달한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3만 8000여 그루의 나무가 훼손될 상황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나무를 더 심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 무려 3만그루가 넘는 나무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숲과 녹지가 탄소흡수원으로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라는 것일까? 숲과 녹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생물종다양성이 높은 숲과 녹지일수록 탄소흡수능력이 더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로 증명돼 왔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숲과 녹지를 없애고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것이 과연 탄소중립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일인가? 기후위기는 이미 기후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매년 폭염,

가뭄, 폭우, 태풍으로 발생하는 피해규모와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기반하는 동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망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시급히 필요한 정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기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도리어 탄소중립을 역행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 건강한 자연생태계 스스로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보전하고 가꾸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번 문제를 단순히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과 논의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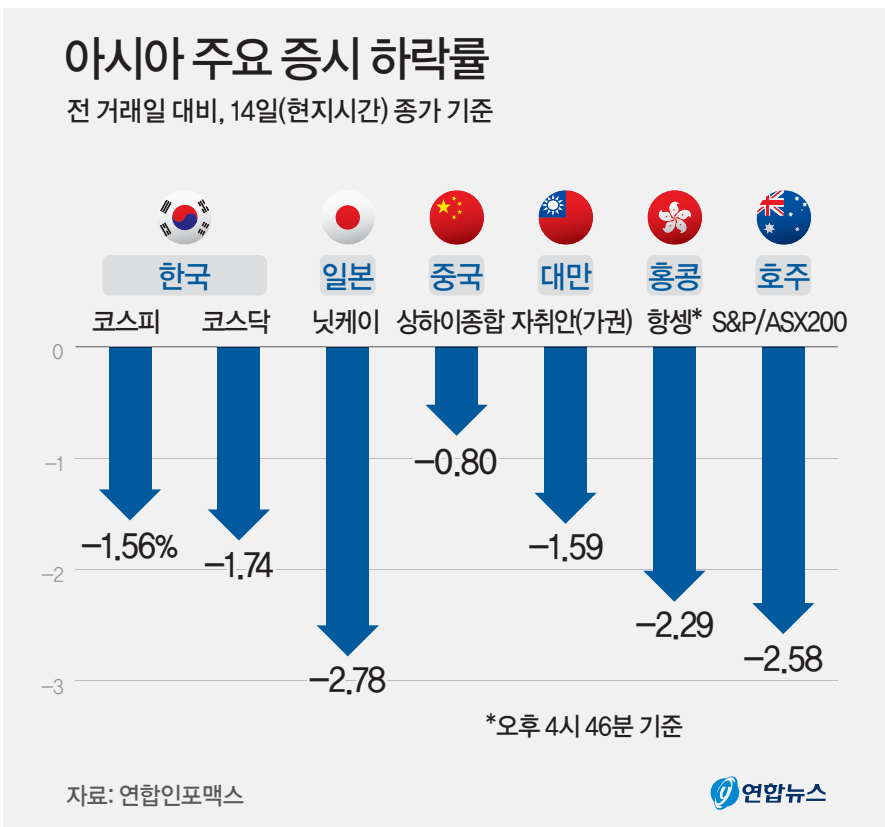
사설

해녀유산 가치, 국가 '몰이해' 이 정도인가

해녀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돼 충격이다. 해녀문화를 폭넓게 보전·활용하는 일과 대통령 공약인 해녀의 전당 건립 등 해녀 관련 사업에 단 한 톨의 국비지원도 반영안된 것이다.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이어 올해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목전에 둔 상황에 정부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처사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을 정도다. 최근 김한규 국회의원측이 2023년 정부 예산안 확인결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해녀 관련 예산 17억3000여만원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 공약인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9억원도 기획재정부서 모두 삭감됐다. 도가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인류문화유산인 해녀의 가치

를 널리 알리고, 후세에 전승토록 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해녀 관련사업 국비 모두 삭감돼 지원을 못받게 된 것이다. 정부의 해녀예산 전액 삭감은 세계적 여성어업유산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이자 '지방홀대'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세계 유일의 여성어업유산인 해녀의 문화적 가치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로 일찍 인정받았고, 연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모두 심혈을 기울이는 시점이라 더 그렇다. 해녀 국비예산이 최근 3년간 계속 반영돼 온 사례와도 사뭇 대비된다. 도와 지역 국회의원은 해녀 유산 가치의 홍보·전승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회 심의과정서 국비 반영을 꼭 이뤄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열린마당

'소방차 길터주기'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



홍영관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량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무심코 한 불법주·정차가 소방차 혹은 구급차의 진입을 막아 사고현장 도착시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소방차 길터주는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다. 물론 많은 홍보활동으로 긴급차량 운행 시 길터주기를 하는 운전자 또한 많아졌다. 하지만 길터주기 요령을 몰라서 소방차(긴급차량) 접근 시 당황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도로 여건상 길터주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긴

급차량 운행 시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을 숙지하고 우리 모두 최소한의 노력으로 실천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우측이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혹은 일시 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운전한다. '소방차 길터주기'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이다.

또 태풍 북상 소식에 긴장감 도는 제주

제주에 태풍 북상 소식에 또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많은 상처를 남긴 가운데 일주일만에 또 태풍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14호 태풍 '남달'이 발달해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주에 영향을 미치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행히 남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규슈지방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태풍의 길목인 제주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남달은 15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0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남달은 오키나와를 거쳐 18일 오후 일본 규슈를 통해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규모는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40m, 강풍반경 360km로 강

도 '강'이다. 제주는 남달이 일본 규슈에 상륙하는 18일 오후부터 밤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풍속 초속 25m 이상 범위인 '폭풍반경'에는 들지 않겠지만 초속 15m 이상의 '강풍반경'에는 제주 동부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남달의 진로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한반도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던 남달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 것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더라도 남달이 북상하는 도중에 진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화에 따라 태풍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달이 북상하면서 제주 동쪽지역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라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운형.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구독신청·배달 750-233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민중(제주시수협 감사, 한국해양구조협회 제주지부 협회장, 경주김씨조천읍지회장, 강경자(대자연가든)의 자 김동언 상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임관: 2022년 9월 16일(금요일) 오전 9시. 발인일시: 2022년 9월 17일(토요일) 오전 9시. 장지: 북촌공동묘지 분향실. 연락처: 김민중 010-3696-9907, 강경자 010-9767-9907.

부고 양동우 어머니 원주변씨 순희(향년 98세)께서 서기 2022년 9월 14일 오후 4시 11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임관: 2022년 9월 16일(금요일) 오전 8시. 발인일시: 2022년 9월 17일(토요일) 오전 8시. 장지: 양지공원. 아들: 양동우, 양영순, 문신홍, 경희, 강덕부. 딸: 김성완, 문창완, 문경필, 문소연, 선령, 김희진, 강수경, 주승연, 현정, 김희경. 연락처: 강덕부 010-2698-7720, 양경희 010-2699-7720, 문창완 010-4147-336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계석(前 신항주택 대표이사·향년 8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들 양준혁, 며느리 강순희, 준용, 고은숙. 2022년 9월 16일.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2년 9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일치에 의하여 어업회사법인 제주바다전복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바다전복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양태조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연락처: 064-783-8987, 010-5755-8987,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통신전주건설(가압자부담공사), 네트워크 설비공사, 전관방송 설비공사,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753-0404 FAX.751-0045